한글 '김치' 유니폼 입고 짜릿한 승리 거둔 마이너리그 구단

미국프로야구(MLB) 마이너리그팀이 한국 문화를 기념하기 위해 한글로 '김치' 라고 쓴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치러 눈길을 끌었다.

지난 19일 '연합뉴스' 에 따르면 MLB 마이너리그 더블A 팀인 몽고메리 비스킷츠 구단은 지난 16일 하루 한글로 '김치' 라고 적힌 주황색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섰다. 등번호에는 김치를 시각화한 이미지를 넣었다.

몽고메리 구단은 MLB 탬파베이 레이스 산하 마이너리그 더블A 팀이며, 앨라배마주 주도인 몽고메리시를 연고지로 한다. 최지만이 메이저리그 탬파베이 레이스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 팀은 이날 몽고메리 홈경기에서 상대 팀인 빌록시 슈커스에 9대 8로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

이날 경기장 매점에서는 구단 상징인 비스킷에 김치 소스를 얹은 김치 비스킷과 김치 나초, 군만두가 판매됐다. 선수들이 입은 '김치 유니폼' 은 온라인 경매에 부쳐졌다.

구단 홈페이지에서는 '김치 유니폼' 과 김치를 캐릭터화한 티셔츠 등도 판매됐다. 또' 한국 문화유산의 밤' 이라는 이름으로 전통무용 등 다양한 한국문화도 소개됐다.

몽고메리에는 2005년 현대차 앨라배마 제조법인(HMMA) 진출을 계기로 관련 한국 기업이 주변에 속속 들어서고 있다. 또 주변에 한인타운이 형성되고 한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번 행사는 한국과 앨라배마주의 교육·경제 교류를 추진해온 비영리단체 'A-KEEP' (Alabama Korea Education and Economic Partner)과 구단이 손잡고 한국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 구단의 마이크 머피 매니저는 경기 전 현지 언론 '몽고메리 애드버타이저' 인터뷰에서 "오늘 밤 몽고메리 비스킷츠는 몽고메리 김치가 된다." 며 "음식이야말로 문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머피 매니저는 내년에도 한국 유산의 밤을 개최하겠다고 덧붙였다.

▲ 몽고메리 비스킷 선수들이 모여 승리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 사진= twitter(biscuitbaseball)

밀워키, 피닉스 꺾고 50년만에 NBA 챔피언결정전 우승

▲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MVP 트로피를 들고 환호하고 있다. 사진= twitter(Alexandros Kottis)

밀워키 벅스가 피닉스 선스를 제압하고 50년 만에 미국프로농구(NBA) 챔피언결정전 정상에 올랐다.

지난 21일 '뉴시스' 에 따르면 밀워키는 전날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파이서브 포럼에서 치러진 피닉스와의 2020~2021시즌 NBA 챔피언결정전(7전 4선승제) 6차전 홈 경기에서 105-98로 승리했다. 이로써 4승2패를 기록한 밀워키는 구단 통산 두 번째 챔프전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밀워키의 챔피언결정전 우승은 1970~1971시즌 이후 50년 만이다.

밀워키는 이번 시즌 동부 콘퍼런스 3위(46승26패)로 플레이오프(PO)에 올라 마이애미 히트, 브루클린 네츠, 애틀랜타 호크스를 연파하고 서부 콘퍼런스 2위(51승21패) 피닉스와 챔프전에 만났다. 챔피언결정전 1~2차전을 내리 패하면서 위기에 몰렸던 밀워키는 3차전부터 6차전까지 4연승을 달리며 역전 우승을 일궈냈다.

NBA 챔프전 역사상 0-2로 뒤지다 역전 우승에 성공한 건 밀워키가 5번째다. 반면 1993년 이후 28년 만에 정상을 노렸던 피닉스는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이날 밀워키는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50점 14리바운드 '더블더블' 로 팀 우승을 이끌며 챔프전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다. 아데토쿤보도 정규리그에서는 부상 등으로 이전 시즌만큼 활약하지 못했지만 챔프전에서는 한풀이하듯 펄펄 날면서 챔프전 MVP에 뽑히는 기쁨도 동시에 누렸다.

특히 6차전에서 기록한 한 경기에서 50득점과 10리바운드 이상에 5블록슛은 1973~1974시즌 기록을 남기기 시작한 이래로 아데토쿤보가 플레이오프에서 처음 달성한 선수가 됐다. 야니스 아데토쿤보는 이날19개의 자유투를 얻어 이중 17개를 성공시키며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줬다.

1968년 창단 이래 우승이 한 차례도 없었던 피닉스는 크리스 폴(26득점 5어시스트)과 데빈 부커(19득점 5어시스트)를 앞세워 4쿼터 초반까지 접전을 이어가며 승부를 7차전까지 이어가기 위해 반전을 노렸지만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했다.

특히 데뷔 16시즌 만에 처음 챔프전 무대를 밟으며 내심 우승까지 욕심냈던 폴은 2차전까지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며 다시 한 번 무관에 그치게 됐다.

통증 전문 치료 병원

오렌지[백] 한방·척추병원

Baek Chiropractic-Acupuncture, Inc

"28년의 임상경험과 한방/척추의 정확한 진단" 으로,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고 진료해 드립니다.

침, 부황, 한약/보약, 척추교정, 엑스레이, 각종물리치료를 모두 한곳에서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각종 보험	교통사고
지정병원 승인필요 (서울/세종/대한) 센트럴 헬스, 웰케어 지정병원 승인필요 없음 Scan, Care 1st Clever Care, Kaiser Humana, Blue cross Blue Shield, AARP 일반 메디케어 파트 B	오바마 케어 Health Net, Blue cross Blue Shield, Kaiser Aetna, Cigna United Health Care HMO- 주치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도 치료가능합니다 *예외가 있으니 전화 확인 요망	사고 보험 처리 도와드립니다. 무료 상담! 전화주세요!

* 그 외 보험도 전화로 확인해 드립니다. (보험 없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 플랜도 있습니다.)

진료 내용

두통, 어깨, 목, 허리, 무릎, 발목, 저림, 오십견, 안면마비, 우울증, 수면장애, 감기, 갱년기 증상 등

진료시간 월~금 9am~6pm/ 토 9am~12pm 점심시간 12pm~1pm/ 목 closed

예약/상담 714.530.7001

9681 Garden Grove Bl., Suite 101
Garden Grove, CA 92844(모란각 식당 옆)

Dr. 백샤론
한의사, 척추신경의사
SCU 척추 의대 졸업
South Baylo 한의대 졸업